

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

- 조승환 해수부 장관,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 참석 -
- 기업과 생산자 간의 상생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(화) 국회에서 진행된 ‘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’에 참석했다.

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,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하였으며, 해양수산부와 ‘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’도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.

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▲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▲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▲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.

한편, 해양수산부는 HD현대,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조 장관은 축사에서 “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하 (044-200-5431)